

新외감법에 발목잡힌 1兆 수출… 웃지 못한 유한양행

**기술료 수익, 분할 인식으로 실적↓
연구개발비 증가 더 커… 효과 ‘미미’**

유한양행이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연이어 따냈지만,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기술료의 수익인식 기준이 더욱 깊어진 탓이다. 이 때문에 매 분기 반영되는 기술료보다 연구개발비 증가가 더 커 실적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시장도 시큰둥한 상태다. 2일 코스피 시장에서 유한양행은 1.39% 가량 하락한 24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조 원 이상 기술수출 계약을 발표한 전일에도 유한양행 주가는 2.86% 오르는데 그쳤다.

◆**계약금 1228억원 받았지만**

유한양행은 지난 해 7월부터 총 4차

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4차례 계약으로 유한양행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총 1억 달러가 넘는다. 원화로 환산하면 1228억원 규모다.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된다면 해도 반환 의무가 없는 돈이다. 특히 올해 1월과 7월 기술수출로 받은 계약금은 약 639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501억원보다 많다.

하지만 유한양행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유한양행의 기술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는 지난 1분기부터 시작됐다. 유한양행은 지난 4월, 애초 26일로 예정됐던 1분기 실적 공개를 미루고, 5월에 제출하는 분기보고서로 대체했다. 길리어드와 맺은 기술수출 계약금이 문제가 됐다.

유한양행은 지난 1월 길리어드에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기술을 수출하며 1500만 달러(174억원)의

계약금을 일시 수령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적은 29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공개된 1분기 영업이익은 60억원에 그치며 실망을 안겼다. 전년 대비 76%, 시장 추정치 대비 80%나 감소한 수치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당초 실적에는 계약금을 일시 반영했지만 회계법인 검토 과정에서 30개월로 나눠 인식하게 되면서 16억원 밖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갑자기 회계처리를 변경하느라 실적 공개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R&D비용 증가가 더 가파를 것”**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기술수출 계약 이후에도 계약 당사자의 추가적으로 수행 의무가 남아 있을 경우, 그 기간에 맞춰 계약금을 분할 인식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얀센에 기술수출한 후 받은 계약금 5000만 달러

(581억원)를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20개월 가량 분할 인식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회사측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계약금을 다음 해부터 분기별로 인식하기로 결정했다”며 “늘어나는 연구개발비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기술료에 대한 회계감사가 깊어지며 분할 인식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분기별로 반영되는 금액은 줄어들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반환 사례 이후, 향후 임상 실패 리스크를 감안해 기술료에 대한 회계처리가 더욱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조병진 이사는 “기술수출 이후에도 단계별 임상 등 해당 제약사의 수행의무가 언제 종료될지를 판

단해 분할 기간을 정하게 된다”며 “제약사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신규수익인식 기준(IFRS 15)에 따라 기술수출과 관련한 계약금의 수익인식 기간, 마일스톤 관련 회계처리, 로열티 인식 시점 등에 대한 내부 회계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한양행의 실적 전망도 밝지 않다. 매 분기 반영되는 기술료는 줄어든 반면, 연구개발 비용이 급속히 늘고 있는 탓이다.

NH투자증권 구완성 연구원은 “이번 계약금은 매분기 40억원이 분할 인식되고, 레이저티닙 계약금과 길리어드 NASH 치료제 계약금 합산시 매분기 약 95억원이 반영될 것”이라며 “하지만 R&D비용이 올해 145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억원 가량 늘어나며 기술료 유입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C녹십자의료재단 “글로벌 경쟁력 갖출 것”

창립 37주년 기념식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 의료법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지난 1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GC녹십자 R&D Center(연구개발 센터) 강당에서 37주년 창립기념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이 날 행사는 GC녹십자의료재단의 창립 37주년 기념식과 함께 GC녹십자랩셀, GC녹십자자금의 창립기념식도 함께 개최됐다. 올해로 GC녹십자랩셀과 GC녹십자자금은 각각 창립 8주년, 6주년을 맞았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40여명의 직원에게 근속상과 공로상, 모범상이 수여됐다. 또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부 세포유전팀·혈액팀, 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 면역세포팀, G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이 지난 1일 열린 3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C녹십자자금 정밀의학시스템본부 BI 팀 총 4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창립기념사에서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은 “지난 37년 간 쌓아온 노력으로, 국내 1위를 지속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있는 연구기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건보 시행 30주년·보장성 강화 2주년
“최대한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 맞이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 미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보험 증을 잊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 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과 3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년 안팎의 일들”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

/우승준 기자 dn1114@

환경문제 담은 ‘달아 높이도 솟았구나 展’

광동제약 가산천년정원서 개최

광동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 2층 가산천년정원에서 미술전시 ‘달아 높이도 솟았구나 전(展)’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멀종위기 동물을 소재로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온 엄수현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엄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모거북이, 다람쥐원숭이, 회색곰, 붉은 여우 등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들은 평화로운 광경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이 버린 각종 폐기물이나 난개발의 현장 등을 배경으로 한다. 작가는 환경 오염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천진한 동물의 모습과 함께 담아 반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환경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준비한 전시회”라



며 “온실가스 감량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제품’, ‘물발자국 인증’ 등을 받아온 광동제약도 환경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7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이세경 기자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유방암 학회서 특강

‘韓 현황·종양성형술 新수술법’ 주제

이화여대의료원은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사진)이 지난 6월 28~2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유방암리 및 암 진단 세계학술대회에 특별연자로 초청됐다고 2일 밝혔다.

유방암리 및 암 진단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세계학술대회는 입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방암 병리진단 및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는 세계 최

고 수준의 학술대회다. 이 학술대회에 백 원장은 ‘한국 유방암의 현황과 종양성형술의 새로운 수술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백 병원장은 런던에서 15~17일 열리는 유방암 및 치료 분야의 세계 전문가 회의와 18~20일 열리는 제4회 세계 유방암 인사이트 컨퍼런스에서도 같은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건강강좌 개최

이대서울병원이 개원을 기념해 오는 11일 오후 3시 중강당에서 ‘수은 혈압기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이자 이대서울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편심병 교수(사진)의 강의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여행용 치약·칫솔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